2020 년 6 월 14 일 "놀라운 기도의 가치"(출 2:23-25)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창조의 회복을 향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죄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드리는 구원의 기도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배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70 명 대식구가 이집트로 이민을 한 후 세월이 오래 지나 번성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별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창 15 장에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 땅으로 옮겨졌다가 4 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등...) 그들 안에는 야훼(여호와) 신앙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들려졌고,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들의 상황을 모르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으신 나와 피조계를 다 아십니다. 시 139:1-6 절 참고. 그러면 이렇게 다 아시는데 고난 당하는 백성들을 왜 그냥 두셨을까요?

홀로 행하시지 않는 파트너쉽(동역)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계를 다스리는 일을 계속 주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셨습니다(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분명히 동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때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2] 기도의 놀라운 가치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이유는 모든 일을 협력/완성한 후에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온 피조계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최종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레고 선물을 받으면 엄청 기뻐하며 설명서에 있는 조립품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결국 아빠가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한 후, 아빠는 네가 만들었다고 칭찬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빼기도 하고, 네가 해보라고도 합니다. 이런 대화와 협력이 없으면 완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맡겨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위임(선물) 받은 것은 이 땅의 것들과 삶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순방향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누리는 것이 선물의 목적입니다. 마스터 플랜과 궁극적 목표는 창조주 아버지께 있으므로 삶의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창조의 순방향) 협력하고 대화하고 간구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의 차원을 넘어, 본질적 차원에서 주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자녀의 기도가 아버지의 역사를 추동합니다. (추동 - 이미 세워진 목표와 계획을 진행하게 하는 힘) 요리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요리하는데 필요한 불을 제공하는 파트를 우리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불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때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본문에서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은 실행을 뜻합니다. 모세를 부르심, 열재앙 사건, 어린양의 피의 사건(유월절), 홍해의 갈라짐... 이것을 위해 아버지와의 교통,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추동하는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과 협력 위에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과 함께 에덴에서 보인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사심으로 그의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드려지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올려 드려짐을 믿습니다는 고백의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기도가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들려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서툰 기도와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도 들려져야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이러한 기도의 세계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드려온 기도의 초점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이루는 순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2. 나의 기도 시간을 점검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애쓰십시다. 앞으로 몇 주간 기도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